

AUTHOR 허순길

TITLE 개혁주의 교회와 권징

IN 고신대학보

14호 (10, 1975): 4-6.

목 차

□ 교회생활 지남 □
 개혁주의 교회와 권징.....허 순 길 / 4

□ 설 교 □
 변화산 교회.....김 용 도 / 7

□ 논 단 □
 칼빈에 있어서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김 성 린 / 10
 종교개혁과 16세기 설교.....양 승 달 / 14
 미래학의 허구성.....조 성 관 / 18

□ 성경연구 □
 로마서의 특이성.....오 병 세 / 21

□ 시 론 □
 이단목록과 그 교설요약.....신 현 국 / 24

□ 서 평 □
 바이얼린 할아버지.....정 홍 권 / 51

□ 수 필 □
 하나님이 때려라 해서 때린다.....김 석 만 / 27
 생명의 신비.....원 석 준 / 28
 비에 대한 소감.....한 경 희 / 30

□ 르 보 □
 제주도 선교.....조 명 서 / 32
 탐라에 세워진 제주 고려교회를 찾아.....김 진 섭 / 34
 기독교 용어해설.....이 상 규 / 38
 신앙생활에서 법률상식.....정 춘 수 / 39

□ 인터뷰 □
 김영진 선교사와 함께.....윤 정 태 / 43
 <병사안내·소식>

□ 교회탐방 □
 재림을 대비하는 거제교회..... / 49

교회생활 지남

개혁주의 교회와 권징

허 순 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참된 교회에 속할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벨직 신앙고백 28장). 그러면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지(標識)를 셋으로 보고 있다. 곧, 그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한 전파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대로 성례를 거행하는 일이며, 셋째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 표지를 가지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된다. 참된 교회란 이 세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씀의 진실한 전파만 있고 성례의 진행이나 권징의 시행이 무시될 때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으며, 말씀의 진실한 전파와 성례의 거행이 있어도 또한 권징의 시행이 없을 때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내외에서

말씀의 신실한 전파와 성례의 거행은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권징을 경시하거나 간과해 버리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게 된다. 이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슬픈 현상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때에 서로 서로 일깨워 경종을 울리면서 참된 교회의 면모를 찾고 보존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아야겠다.

개혁주의 교회의 터전을 놓은 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권징은 인간이 발견해 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주신 생활의 법이었기 때문에(마 18: 15-18) 교회에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가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이 권징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기독교강요 IV, 1: 9), 말씀의 진실한 전파에 이 권징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의 증거와 영혼의 관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의 전파는 개인적인 권면과 책망, 그리고 교리를 기어코 받아들이게 하여 그 교리를 그릇된 것으로부터 막는 수단이 동반되어야 한다……”(공관 복음주석)고 한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허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인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생활의 결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교회권징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교리가 교회의 생명인 것 같이 권징은 힘줄이 된다”고 하였다(기독교 강요 IV, 12:1).

칼빈은 이와 같이 권징을 교회생활의 불가결한 요소로 보았기 때문에, 1537년 제네바 교회의 법을 제정할 때에 벌써 “교회는 권징의 이행없이 그 기능을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등한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가 1538년 제네바 시당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그의

강력한 권징의 요구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교회에 있어서의 권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가 하는 것은, 1541년 그가 제네바로부터 다시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교회권징의 일법이 그의 초청 허락의 조건이었음을 보아도 알게 된다. 그는 교회란 지상의 천국 곧 “산 교제”(a living fellowship)의 세계로 등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개혁주의 교회는 그 신앙고백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교회의 권징’을 포함시키고 있다(화란개혁교회 신앙고백 29장,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8장).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30장에는 “교회의 직원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고 하고, “교회의 권징은 파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필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파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온 덩어리에 퍼질 누룩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직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데 필요하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고, 악명이 높고 완고한 훼방자로 말미암아 그의 인치심이 모독을 당한 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고 고백하고 있다.

“참된 교회” 되기 위하여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 권징 시행에는 세가지의 단계가 있다(마 18:15-18). 첫 단계는, 형제의 허물을 발견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권면하는 것이다. 그가 완고하게 그 권면을 받지 않을 때에는 둘째 단계로 증인 앞에서 다시 권면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에는 세째 단계로 교회의 치리회에 넘겨 다루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교회의 치리회는 독자적인 신권(神權)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논하고 판단함으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교전 5장 주석). 이는 곧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마 18:17-18).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누

구나 교회의 치리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높이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행하는 권징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와 개인은 유익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교회가 권징시행을 등한히 하고, 교회의 신자들이 이 권징을 무시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칼빈은 “권징을 없애기를 바라거나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들이 이를 고의로 하든지 혹은 무지에서 하든지간에,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허무는배 기여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하였다(기독교강요 IV, 12:1).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주님의 “참된 교회”의 건설자로 봉사하고 있는가를 자성(自省)해 보아야 하겠다. 교회의 권징을 등한히 하거나 외면할 때, 주님의 교회를 허물어 뜨리는 일에 동참하는자가 되겠기 때문이다.

〈*본대학 부교수〉